

2026.08.05.

주요 이차전지 업체 2026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

- 2025년 4분기 이후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 셀 업체 대비 소재 업체 실적 회복 수준 저조

민원식 기업4실 선임연구원
02.368.5659
wsmin@korearatings.com

김경률 기업4실 책임연구원
02.368.5344
krkim@korearatings.com

이지웅 기업4실 실장
02.368.5475
jwlee@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가 주요 이차전지 업체의 2026년 2분기 잠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5년 4분기 이후 나타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셀 업체는 유럽 전기차(EV)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향 물량 확대, 사업 구조조정 효과 등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분기 조정 EBIT(AMPC 반영)이 흑자 전환하였다. 소재 업체 또한 전방 고객사로의 물량 공급이 재개되고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과 재고평가이익 등이 반영되면서 수익구조가 개선되었다. 다만 셀 업체의 물량 회복이 소재 발주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전반적인 실적 회복 수준은 셀 업체 대비 저조하였다.

셀 업체는 3사(LG 에너지솔루션, SK 온, 삼성 SDI) 모두 2026년 2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증가하고 조정 EBIT 이 흑자 전환하였다.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 제품 라인업 확충을 통한 유럽 EV 시장 공략과 미국 ESS 향 물량 확대가 외형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사업 구조조정과 물량 증가에 따른 주요 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되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물량 및 가동률 회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SK 온은 고객사 보전금 수취가 손익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재 업체는 대체로 2025년 4분기 이후 외형 확대와 적자폭 축소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실적 회복 수준은 셀 업체 대비 미진하였다. 양극재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과 재고평가이익, 기초소재 부문 및 기타 자회사의 이익 창출 등에 힘입어 영업흑자를 유지하였다. 반면 분리막과 동박을 각각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K 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 넥실리스는 물량 회복이 지연되고 주요 공장의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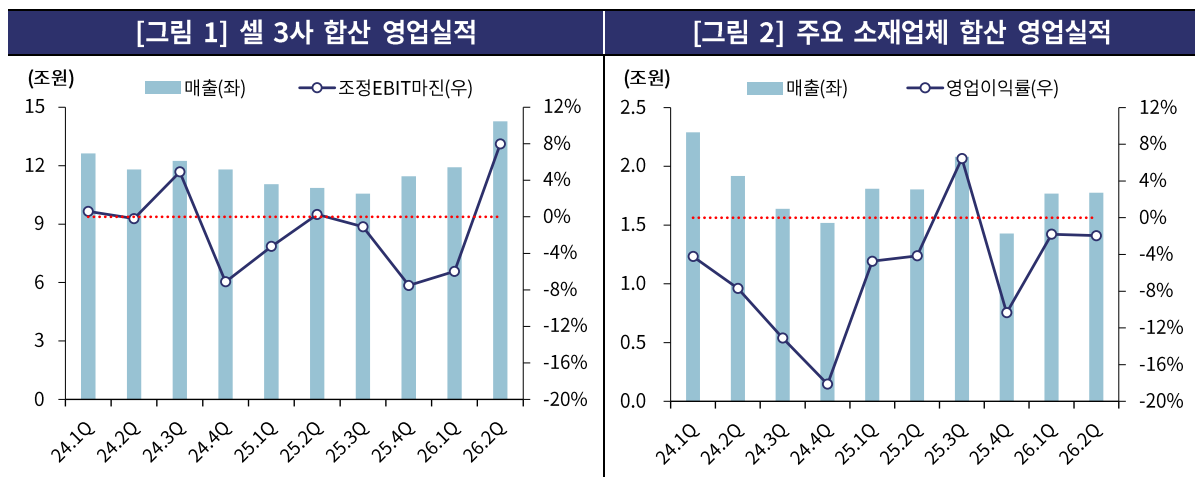
등급 변동 모멘텀 측면에서는 계열사 합병을 통해 사업 및 재무적 완충력이 보강된 SK 온을 제외한 주요 업체의 신용도 하향 압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KR이 장기 유효등급을 보유한 5개 주요 이차전지 업체(LG 에너지솔루션, SK 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중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는 2026년 6월말 TTM(Trailing Twelve Month, 최근 12개월 기준)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가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등급변동요인에 별도의 정량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EBITDA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입금도 증가하고 있어 등급하향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2026년 2분기 잠정실적 리뷰

2026년 2분기 주요 이차전지 업체 8개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넥셀리스)의 잠정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2025년 4분기 이후 나타난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셀 업체는 유럽 전기차(EV)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향 물량 확대, 생산라인 조정 및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하고 조정EBIT(AMPC 반영) 기준 분기 영업손익이 흑자 전환하였다. 다만 SK온은 고객사 보전금이 대규모 반영되면서 배터리 부문의 본원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지표 대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 업체는 전방 고객사의 발주가 점진적으로 재개되면서 저점 대비 회복된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었다. 다만 셀 업체의 물량 회복이 소재 발주 확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상대적 물량 회복 수준이 크지 않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여전히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 영업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주)1. 셀 3사: LG에너지솔루션(연결), SK온(배터리 부문), 삼성SDI(연결)

2. 셀 3사 조정EBIT마진은 AMPC 보조금 수익 합산 후 기준

3. 주요 소재업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넥셀리스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KR 재구성

1) 셀 업체

국내 셀 3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ES'), 삼성SDI, SK온 모두 2026년 2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미국 EV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전압 미드니켈 등 중저가 제품 라인업 확충을 통한 유럽 EV 시장 공략과 미국 ESS향 물량 공급을 통해 2025년 4분기 이후 분기별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3사 모두 2026년 2분기 조정EBIT이 흑자 전환하였다. 물량 증가에 따른 주요 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생산라인 조정, 비용 절감 등이 수익구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LGES와 삼성SDI는 물량 및 가동률 회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SK온은 고객사 보전금 수취가 손익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LGES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5.3% 증가한 7조 5,602억원을 기록하였다. 중저가 미드니켈 제품의 유럽 EV향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경쟁사 대비 선제적으로 진입한 미국 ESS 시장에서도 물량이 확대되었다. 조정EBIT은 직전 분기 대비 3,211억원 증가한 1,133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판매 물량 증가에 따른 주요 공장의 가동률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었고 생산라인 조정과 비용 효율화 노력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SK온 배터리 부문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1조 8,025억원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시장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핵심 시장인 유럽과 미국 EV향 판매 부진이 이어졌으며, ESS 시장 진입도 경쟁사 대비 늦어 외형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었다. 조정EBIT은 직전 분기 대비 1조 1,709억원 증가한 8,217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Ford와의 합작법인 종료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와 고객사 보전금 수취가 대규모 이익 창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보전금의 일회성 성격과 제한적인 매출 회복 수준을 감안하면, 배터리 부문의 본원적인 수익구조 개선 효과는 지표를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K온 전사 연결기준으로는 27조 136억원(QoQ +49.0%)의 분기 매출과 1조 8,267억원(QoQ +1조 9,719억원)의 조정EBIT을 기록하였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주요 계열사와의 합병을 통해 편입된 석유 부문과 윤활기유·윤활유 부문에서 합산 25조 2,111억원의 매출과 1조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과 석유제품 스프레드 개선이 해당 부문의 실적 호조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SDI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5.4% 증가한 3조 7,688억원을 기록하였다. 중저가 신규 제품의 양산이 시작되면서 유럽 EV향 판매가 증가하였으며, 성장세가 높은 미국 ESS 시장에서도 물량 확대가 이어졌다. 조정EBIT은 직전 분기 대비 3,594억원 증가한 2,038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주요 공장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미국 현지 생산·판매량에 연동된 AMPC 보조금 수취 확대도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표 1] 셀 업체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체	구분	2023	2024	2025	25.2Q	25.3Q	25.4Q	26.1Q	26.2Q
LGES (연결)	매출	337,455	256,196	236,718	55,654	56,999	61,415	65,550	75,602
	조정EBIT	21,632	5,755	13,462	4,922	6,013	-1,220	-2,078	1,133
	조정EBIT마진	6.4%	2.2%	5.7%	8.8%	10.5%	-2.0%	-3.2%	1.5%
SK온 (배터리)	매출	128,972	62,666	69,782	21,077	18,079	14,572	17,912	18,025
	조정EBIT	-5,817	-11,270	-9,313	-664	-1,248	-4,408	-3,492	8,217
	조정EBIT마진	-4.5%	-18.0%	-13.3%	-3.2%	-6.9%	-30.2%	-19.5%	45.6%
SK온 (연결)	매출	128,972	140,347	567,476	136,824	144,964	136,917	181,251	270,136
	조정EBIT	-5,817	-10,866	-2,744	617	169	-1,897	-1,452	18,267
	조정EBIT마진	-4.5%	-7.7%	-0.5%	0.5%	0.1%	-1.4%	-0.8%	6.8%
삼성SDI (연결)	매출	227,083	165,923	132,667	31,794	30,518	38,587	35,764	37,688
	조정EBIT	16,334	3,632	-17,224	-3,978	-5,913	-2,992	-1,556	2,038
	조정EBIT마진	7.2%	2.2%	-13.0%	-12.5%	-19.4%	-7.8%	-4.4%	5.4%
합산	매출	693,510	484,785	439,167	108,525	105,596	114,574	119,226	131,315
	조정EBIT	32,149	-1,883	-13,075	280	-1,148	-8,620	-7,126	11,388
	조정EBIT마진	4.6%	-0.4%	-3.0%	0.3%	-1.1%	-7.5%	-6.0%	8.7%

주)1. 조정EBIT은 AMPC 보조금 반영 후 기준

2. SK온 연결기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2024.11.01), SK엔텀(2025.02.01), SK엔무브(2025.11.01) 합병 효과 반영

3. LGES 회계정책 변경으로 2026년 1분기부터 AMPC 보조금 수익 매출에 반영

4. 합산은 LGES(연결), SK온(배터리), 삼성SDI(연결) 실적 합산 기준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회사 제시

2) 소재 업체

소재 업체는 대체로 2025년 4분기 이후 외형 확대와 적자폭 축소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실적 회복 수준은 셀 업체 대비 미진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양극재가 주력 제품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2026년 2분기 영업이익률이 3~4%대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반면, 분리막과 동박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 SK넥실리스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었다. 양극재 업체의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튬 가격이 2026년 들어 반등하면서 판가 상승과 재고평가이익 인식이 수익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

포스코퓨처엠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0.3% 감소한 6,795억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고객사인 엘티엠셀즈 1공장의 가동 중단과 일부 하이니켈 제품의 판매 지연으로 에너지소재 부문 판매가 부진하였다.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90억원 증가한 267억원을 기록하였다. 양극재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에너지소재 부문의 영업이익은 25억원에 그쳤으나, 안정적인 Captive 판매 기반을 보유한 기초소재 부문에서 242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며 전사 수익성을 보완하였다. 이에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3.9%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에코프로비엠은 2026년 2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4.7% 감소한 5,767억원을 기록하였다. 양극재 판가 상승과 유럽 EV향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EV, ESS 시장에서의 물량 감소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고가의 하이니켈 삼원계 양극재 중심의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중저가 제품 위주인 ESS 시장에서의 물량 확보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억원 감소하였으나 2026년 이후 분기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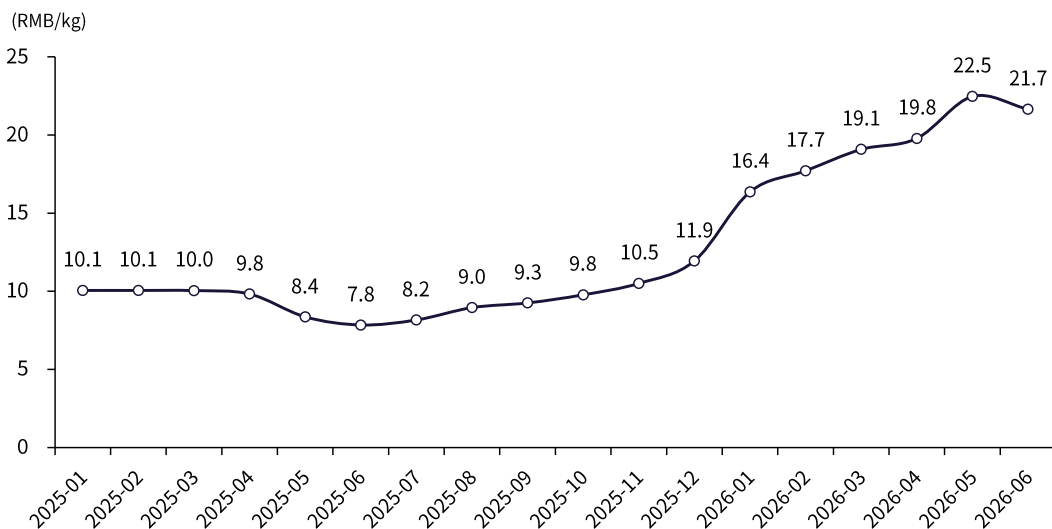
업이익률이 3%를 지속 상회하고 있어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에코프로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8,208억원(QoQ +0.3%)을 기록하였다. 에코프로에 이치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기타 자회사의 매출 증가에도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매출 감소로 전사 매출 증가가 제한적 수준이었다. 영업이익은 32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35억원 감소하였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가동률이 폭우와 토사 붕괴 영향으로 저하된 점이 전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26년 들어 분기 영업이익률이 4%를 지속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KIET는 주요 이차전지 업체 중 가장 부진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었다.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10.0% 증가한 39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25년 평균 분기 매출인 655억원을 하회하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 거래처이자 Captive 고객인 SK온의 2분기 손익 개선이 배터리 판매 물량 확대보다는 고객사 보전금 등 비경상적 요인에 주로 기인함에 따라 SKIET의 분리막 판매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은 -634억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공장의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2024년 이후 대규모 적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4분기 이후에는 분기 영업적자 규모가 매출을 상회하고 있다.

SK넥실리스의 2026년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61.9% 증가한 2,540억원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 신공장 가동률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은 -308억원(QoQ +18억원)으로 적자 기조가 이어졌다. 고정비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의 매출이 이어지고 있고, 말레이시아 2공장의 가동 개시에 따른 초기 손실 인식이 수익성 회복을 제약하였다.

[그림 3] 리튬 가격 변동 추이



주) 월별 평균가격 기준

자료) KOMIS

[표 2] 주요 소재 업체 영업실적

(단위: 억원)

업체	구분	2023	2024	2025	25.2Q	25.3Q	25.4Q	26.1Q	26.2Q
포스코퓨처엠 (연결)	매출	47,599	36,999	29,387	6,609	8,748	5,576	7,575	6,795
	영업이익	359	7	328	8	667	-518	177	267
	영업이익률	0.8%	0.0%	1.1%	0.1%	7.6%	-9.3%	2.3%	3.9%
에코프로비엠 (연결)	매출	69,009	27,668	25,316	7,797	6,253	4,970	6,054	5,767
	영업이익	1,532	-341	1,433	490	507	416	209	180
	영업이익률	2.2%	-1.2%	5.7%	6.3%	8.1%	8.4%	3.5%	3.1%
에코프로 (연결)	매출	72,602	31,279	34,130	9,317	9,597	7,151	8,183	8,208
	영업이익	2,982	-2,930	2,138	162	1,499	468	564	329
	영업이익률	4.1%	-9.4%	6.3%	1.7%	15.6%	6.5%	6.9%	4.0%
SKIET (연결)	매출	6,496	2,179	2,619	827	791	418	359	395
	영업이익	320	-2,910	-2,464	-537	-472	-757	-732	-634
	영업이익률	4.9%	-133.6%	-94.1%	-64.9%	-59.7%	-181.1%	-203.9%	-160.5%
SK넥실리스 (연결)	매출	6,243	3,176	5,060	1,273	1,667	1,133	1,569	2,540
	영업이익	-580	-1,676	-1,918	-381	-350	-669	-326	-308
	영업이익률	-9.3%	-52.8%	-37.9%	-29.9%	-21.0%	-59.0%	-20.8%	-12.1%
합산	매출	132,940	73,632	71,196	18,027	20,803	14,278	17,686	17,752
	영업이익	3,081	-7,509	-1,915	-748	1,343	-1,476	-317	-346
	영업이익률	2.3%	-10.2%	-2.7%	-4.2%	6.5%	-10.3%	-1.8%	-1.9%

주) 합산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IET, SK넥실리스 실적 합산 기준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2. 업체별 등급 변동 모멘텀 및 주요 모니터링 요인

KRI 장기 유효등급을 보유한 5개 주요 이차전지 업체(LGES,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IET) 중 계열사 합병을 통해 사업 및 재무적 완충력이 보강된 SK온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신용도 하향 압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KR은 금번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SKIET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하고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하였다. LGES,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는 2026년 6월말 TTM(Trailing Twelve Month, 최근 12개월 기준)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가 하향변동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SKIET는 등급 조정 이후 등급변동요인에 별도의 정량지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EBITDA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입금도 증가하고 있어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업체들은 2026년 들어 매출 증가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이 일부 개선되었다. 다만 과거 대규모 CAPA 증설 과정에서 확대된 차입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며, 일부 업체는 절대적인 영업실적과 현금창출력이 여전히 저조하여 신용도 하향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표 3] 주요 이차전지 업체 등급변동요인 정량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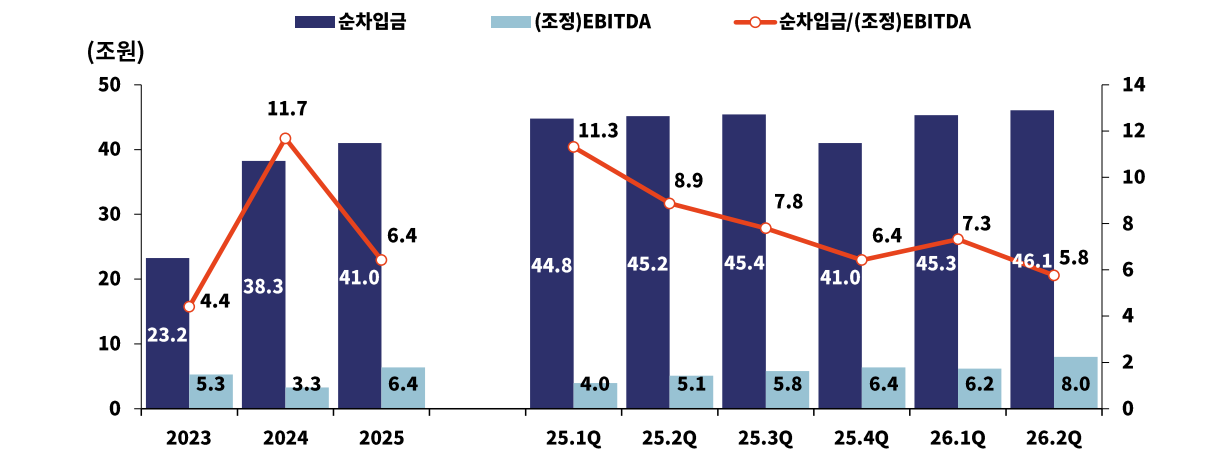
구분			등급변동요인		2023	2024	2025	26.1Q (TTM)	26.2Q (TTM)
			상향	하향					
셀	LGES(AA-/S)	조정EBITDA마진(%)	-	<10.0	13.2	14.1	21.3	19.6	17.9
		순차입금/조정EBITDA(배)	-	>3.5	1.3	3.2	3.7	4.5	4.7
	SK온(A+/S)	차입금의존도(%)	≤27.5	-	50.0	50.1	42.2	40.4	45.1
		순차입금/조정EBITDA(배)	≤1.5	>7.0	N.A.	N.A.	18.3	17.7	5.9
소재	포스코퓨처엠(AA-/S)	순차입금/EBITDA(배)	≤3.0	>5.0	13.6	15.8	13.6	14.5	13.0
		부채비율(%)	-	>150.0	142.6	138.9	102.7	106.2	103.8
	에코프로(BBB+/S)	순차입금/EBITDA(배)	≤3.5	>7.0	2.6	N.A.	6.1	6.5	7.5
		정량요인 없음	-	-	-	-	-	-	-

주)1. (조정)EBITDA는 AMPC 보조금 반영 후 기준, (조정)EBITDA 부(-)의 값인 경우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 N.A.(Not Available)

2. 2026년 1분기, 2분기 (조정)EBITDA는 TTM(Trailing Twelve Month) 기준으로 직전 4개 분기 합산 값 적용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회사 제시, KR 재구성

[그림 4] 주요 이차전지 업체 합산 순차입금 및 커버리지 추이



주)1. KRI이 장기 유효등급 보유한 5개사(LGES, SK온,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IET) 연결 합산 기준.

2. 분기 (조정)EBITDA 수치는 TTM(Trailing Twelve Month) 기준으로 직전 4개 분기 값 합산

3. LGES, SK온의 경우 AMPC 보조금 반영한 조정EBITDA 지표 사용

자료) 각 사 연결감사보고서, 분/반기보고서, IR자료, 회사 제시, KR 재구성

- LGES는 북미 투자에 따른 CAPEX 지출로 차입금이 증가하며 2025년 이후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가 하향변동요인인 3.5배를 상회하고 있다. 2026년 6월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가 21조 9,530억원으로 3월말 대비 약 1조원 증가함에 따라 조정EBITDA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말 TTM기준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가 상승하였다. 향후 ESS 물량 확대와 얼티엄셀즈 가동 재개를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어, 차입금 증가 억제 여부와 수익성 회복을 통한 커버리지 부담 완화 수준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SK온은 2025년까지 양호한 영업실적과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계열사와의 합병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등급 하향 모멘텀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들어서는 사업 구조조정과 고객사 보전금 수취에 힘입어 차입금이 감소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재무부담이 추가로 완화되었다. 이에 2026년 6월말 TTM 기준 순차입금/(조정)EBITDA 지표가 5.9배를 기록하며 하향변동요인에서 벗어

났다. 다만 고객사 보전금의 일회성 효과를 제외할 경우 배터리 부문의 본원적인 실적 회복 수준은 정량 지표 개선 폭 대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전금 효과 소멸 이후 배터리 부문의 수익성 유지 여부와 재무부담 완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포스코퓨처엠은 2026년 6월말 TTM 기준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13.0배로 하향변동요인인 5.0배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영업수익성 회복에 따른 EBITDA 증가와 투자 축소 기조 유지로 차입금 증가가 억제되면서 해당 지표는 2026년 3월말 대비 개선되었다. 향후 미드니켈 및 LFP용 양극재 등 중저가 제품의 양산능력 확보와 매출 기여 수준, 실적 회복을 통한 커버리지 부담 완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요 자회사의 차입금 증가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2026년 6월말 TTM 기준 순차입금/EBITDA 지표가 7.5배를 기록하며 하향변동요인인 7배를 상회하였다. 2026년 하반기 주력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 약 1.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에코프로 참여분을 제외한 외부 유입액은 연결기준 약 6,708억원으로 예상된다. 향후 유상증자 진행 상황과 자금 유입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SKIET는 2026년 6월 신용등급 하향 및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 이후에도 저조한 영업실적과 과중한 차입 부담으로 등급 하향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공장 매각과 국내 증평공장 가동 중단 등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처분손실과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2026년 6월말 연결기준 자본이 1조 2,879억원으로 3월말 대비 1조 2,835억원 감소하였다. 반면 순차입금은 1조 4,505억원으로 3월말 대비 780억원 증가하였으며, EBITDA 적자가 이어지면서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가 악화되었다. 향후 추가 자구안 이행을 통한 차입부담 완화와 사업 구조조정 효과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